당 내)을 방문해서 직접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원은 현재 동 사업 제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원로예술인들의 삶과 예술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모든 결과물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우리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예술정보관((02) 760-4672, 467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힘내라! 한국문학!

문학회생프로그램의 홈페이지 개설

우리원에서는 침체된 한국문학의 부흥과 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소외 지역에 우수한 문학 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학회생프로그램의 홈페이지(www.for-munhak.or.kr)를 개설하였습니다.
문학회생프로그램은 로또복권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이달의 우수문학도서 보급 사업' 과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 선정지원 사업' 이 있습니다.
'이달의 우수 문학도서 보급 사업' 은 매 분기에 출간되는 다양한 문학도서 중에서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도서를 다량 구입,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을 비롯, 문화 소외지역이나 계층 시설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고사 상태에 놓여 있는 문학 출판을 활성화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독자들 또한 전국 도서관에서 훌륭한 우리 문학의 성과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우수문학도서 보급 사업' 과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 선정지원 사업' 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로니에 알림 1

'기억 Memory' 의 음악제

제4회 통영국제 음악제

제4회 통영국제음악제가 윤이상 타계 10주기를 맞아 '기억(Memory)' 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세계 12개국에서 200여 명의 연주자들이 참석, 윤이상의 곡을 비롯한 현대음악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공연했다. '윤이상' 을 추억하려 통영을 찾는 청중을 위해 적어도 하루에 한 곡 이상 그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특히 올해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역시 진은숙이다. 진은숙은 윤이상 이래 가장 주목받는 한국 작곡가다. 지난해 '음악의 노벨상' 으로 불리는 그라베마이어상을 수상했고 이달 초 쇤베르크상까지 받았다. 베를린필의 지휘자 사이먼 래틀은 그를 '세계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5인' 으로 꼽기도 했다. 베를린필은 4월 26일부터 사흘간 진은숙의 작품을 연주하고, 2008년 신작을 위촉해 연주하기로 했다. 베를린필이 작품을 연주한 한국 작곡가는 아직까지 윤이상이 유일하다. 진은숙은 23세 때인 1984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윤이상을 만났다고 한다.
이번 음악제 상주작곡가로 초청받은 진씨는 〈칼라(Kala)〉라는 작품을 아시아 초연하고 피아노곡 〈에튀드 4,5번〉, 현악4중주곡 〈파라메타 스트링〉 등 3개 작품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영국 실내악단 아르디티 현악4중주단, 벨기에 실내악단 익투스, 러시아 첼리스트 보리스 안드리아노프, 독일 합창단 스콜라 하이델베르크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이번 음악제에서 연주했다. 또 '고음악의 영웅' 으로 칭송받는 비올라 다 감바 연주자 조르디 사발과 그가 이끄는 고음악 연주단체 '에스페리옹 21' 이 현대음악과 고음악의 만남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모테트합창단, 한국페스티벌 앙상블, 가야금 앙상블 '사계' ,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씨 등 국내 연주자들도 초청되었다. 한편 통영국제음악제의 가을 시즌은 10월 27일부터 11월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음악회를 비롯해 『국제 윤이상 심포지엄』이 열리며 종전 독립적으로 개최되던 『경남국제음악콩쿠르』가 시즌에 포함됨으로써 음악제와 콩쿠르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다.

마로니에 알림 2

축제의 한국 대중음악

『제2회 한국대중음악』 시상식

한국에서는 최초로 '음반' 중심의, 즉 '작품'을 논하고 그에 따라 수상 여부를 결정하는 대중음악시상식이 지난 3월 22일 오후 7시 20분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 매체 중심의 음악시상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 하에서 출발하여, '창작자, 작품' 중심에서 최고를 뽑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가수 윤종신과 연극배우 오지혜가 사회를 본 이날 시상식은 1,000여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으며, 시상이 치러지는 순간순간 많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왔다.

'올해의 앨범'과 '최우수 모던록' 2개 부분을 석권한 '마이앤트메리'를 비롯하여, '클래지콰이' 또한 '올해의 가수' 그룹 부분과 '최우수 팝' 부분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의 노래'는 조PD와 인순이가 함께 부른 〈친구여〉가, '올해의 영화 · 드라마음악' 부분에서는 드라마로도 큰 인기를 누렸던 〈아일랜드〉가 수상했다.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분에는 시각장애우이자 하모니카 연주자인 전제덕이 수상했다.

마이앤트메리(위) 클래지콰이(아래)

올해의 앨범 : 마이앤트메리
올해의 노래 : 〈친구여〉(조PD)
올해의 가수 : 이승철(남자), 이소라(여자), 클래지콰이(그룹)
올해의 신인 : MOT
올해의 연주 : 모그
올해의 레이블 : 카바레사운드, JNH
올해의 영화 · 드라마음악 : 아일랜드
최우수 모던록 : 마이앤트메리
최우수 팝 : 클래지콰이
최우수 록 : 바셀린
최우수 알앤비&솔 : 거미
최우수 힙합 : 바비킴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 전제덕
공로상 : 한대수
선정위원특별상 : 이기용(허클베리핀)

마로니에 알림 3

우리의 것이 좋다

2005년도 창작연희본 공모

전통연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전통연희의 개발과 재창조해 나가기 위해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창작연희본'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2004년까지는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얻어 진행되었고,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을 얻어 진행되고 있다.

공모작은 무대작품화가 가능한 창작연희본으로 구성형식은 악가무가 함께하는 전통연희를 바탕으로 하며 무대극이나 마당극 모두 가능하다.

선정된 최우수 희곡작품에는 10백만 원, 우수 희곡작품에는 5백만 원의 고료(3편)가 지급되며, 선정된 창작연희본은 2005년 하반기 제작 · 공연될 예정이다. 당선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당선일로부터 3년간 소유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 희곡 작성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

제출서류는 공모신청서, 작품개요서, 창작연희본, 작가이력서 각 7부씩으로 공모신청서는 문예진흥원 홈페이지(www.kcaf.or.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신청접수는 전통연희개발추진위원회(서울시 성북구 하월곡1동 88-3, 서울시 성북구 우체국사서함 158호/방문 접수 불가)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예진흥원 홈페이지 '2005년 전통연희본 공모'를 참조하고, 전화문의는 02)3409-4726으로 하면 된다.

* 문예진흥원 내 홈페이지 공모 안내는 5월 예정.